

## 임원칼럼

# 일류회사, 우리회사

난 사반세기를 거의 건설현장에서 지내면서 나는 벼룩(癖)으로 불릴만한 것을 하나 얻었다. 바로 일류지향의 痘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에겐 저마다 일류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세칭 일류학교를 목표로 학습을 하고 일류직업, 일류직장을 선호하며 자녀혼사때엔 상대가문의 내력을 짚어본다. 기초생계를 충족하는 단계를 넘어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기왕이면 좋은 상품을 선택하게 되고 점점더 고급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싶어하며, 좋은 동네라고 소문난 곳으로 주거지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면 일류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에 「류」란 “어떤 사람이나 유파가 독특하게 지니는 방식”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비슷한 사물들을 몇가지 등급으로 나눌 때에 첫째가는 부류를 일류라고 하는데 이것은 호칭처럼 금방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어떤 조건을 가져야 일류이고 어디서부터 이류로 가늠한다는 것대가 없다.

그 척도는 바로 「Pride」이며 자부심(自負心)이다. Pride는 자만과 달라서 주위가 공감하고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 정신을 바탕으로 이룬 자신의 업적에 당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류를 정의하는 나의 견해이다.

요즈음 같은 총체적인 경기침체와 무한경쟁에 가까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란 실로 간단치가 않다. 셀 수 없이 많은 기업들 중에는 세간의 평가대로 세계일등기업이 되겠다는 원대한 Vision 아래 내실을 갖추고서도 변화에 앞서가는 경영혁신운동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펼쳐가는 일류회사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초일류기업인 양 허장성세를 부리지만 내면 곳곳에 부실의 요소가 산재한 이류회사가 더욱 많다.

그러면 일류회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사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한다.



김채환 상무 / 건축사업본부  
PM 및 용평현장 주재임원

사원들이 자기회사에 대하여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회사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사원들 자신이 일류회사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정도(正道)를 지향하는 애사심이 발동하고 패배주의에 뿌리를 둔 메너리즘에 젖어들지 않으며 진취적인 의욕에 자신을 태운다.

회사는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질풍노도 같은 기세로 얻어진 경영성과를 사원들에게 나누어주는 한편, 좋은 교육기회를 꾸준히 마련해 줌으로써 자질의 향상과 비례하여 자긍심이 높아지며 찌를 것같이 사기가昂양된다.

둘째, 항상 언로(言路)가 뚫려있어야 한다.

발전하는 회사는 상사의 명령에 조건반사적으로 복종시키는 것보다 하부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줌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끌어내어 발전적으로 반영시켜 주는 토양이 조성되어 있다. 명령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곧 항명(抗命)이나 불손으로 간주하지 않는 민주적인 풍토가 필요하다. 부모같은 상사와 자녀같은 부하로 구성되어 편안하면서도 위계가 엄정한 가족같은 회사가 되어야 한다. 명령의 효율성만 강조된 나머지 굴종에 익숙한 하부조직으로 길들여져 있을 때 회사는 서서히 병들어 가게 된다. 상사의 권한은 명령으로써 부하를 닥달하는데 쓰여져서는 안된다. 힘이란 잘 써야만 장사이지 잘못 쓰면 건달이 된다. 상사는 값진 경험을 토대로 하부의견에 더 큰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회사는 힘차게 비상할 수 있게 된다.

#### 셋째, 일류기술의 확보이다.

건설회사는 기술연구소가 아니고 이의집단이다. 몇몇 연구원으로 구성된 실험실 위주의 순수기술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응용기술의 발전이야말로 현장원가를 줄여준다. 현장의 원가절감은 특허에 준하는 위대한 발명이나 세기적 발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관련되는 여러요소들을 지역이나 현장특성에 맞도록 접목, 빠르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합성시킴으로써 최대한의 경제효과를 얻어내는 응용기술이야말로 우리들의 뜻이다. 원가를 도외시한 이론적 기술보다 이익을 전제로 한 품질개선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객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확보하고 부단한 연구개발활동으로 현장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야 회사는 항상 불멸의 기세를 떨칠 수 있는 것이다. 경쟁회사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차별적인 기업문화를 가지고 항상 밝고 원대한 Vision을 제시해주는 회사, 이것이 일류회사이다.

일류가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것은 욕심이 아닌 Vision이다. 내가 일류이고자 할 때 우리회사가 일류가 되는 것이다. **SS**

Pride는 자만과 달라서 주  
위가 공감하고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따  
라서 전문가 정신을 바탕  
으로 이룬 자신의 업적에  
당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일류가 되고  
자 하는 마음가짐 그것은  
욕심이 아닌 Vision이다.